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

THE CRADLE OF
DEMOCRACY



국회부산도서관
NATIONAL ASSEMBLY BUSAN LIBRARY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

THE CRADLE OF DEMOCRACY

1 국회를 들여다보다

LOOKING INTO THE NATIONAL ASSEMBLY

- 대한민국 국회가 걸어온 길
- 국회사·국회도서관사 연표

2 국회를 살펴보다

LOOKING OVER THE NATIONAL ASSEMBLY

- 국회의 구성
- 국회의 활동

3 국회를 만나다

MEETING THE NATIONAL ASSEMBLY

- 국회 가상투어
- 국회의사당 이야기

4 입법활동을 지원하다

SUPPORTING LEGISLATIVE ACTIVITIES

- 입법지원기관
- 국회도서관 디지털 서재

5 국회의 뿌리를 찾다

FINDING ROOTS OF THE NATIONAL ASSEMBLY

- 임시의정원
- 제헌국회

PROLOGUE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요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친 개헌과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국내외의 격동과 시련을 국민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the people. It is a legislative body committed to enact laws as the bases of national operations, examine national budgets, and check and monitor the executive branch. As a matter of fact, it is a representative body for the people as the birthplace and cradle of democracy for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reflecting them in policies. The National Assembly has grown up by virtue of nine(9) times'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political system changes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stituent Assembly in 1948 to the present. Moreover, together with the people, it has overcome domestic and foreign turbulence and ordeals, such as the Korean War, the April 19 Revolution,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June 10 Uprising. As a result, in terms of successfully accomplishing both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one among the countries that have gained independe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that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has played a leading r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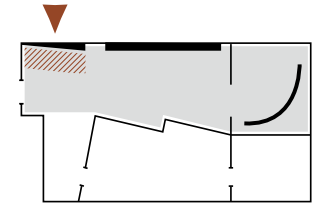
국회를 들여다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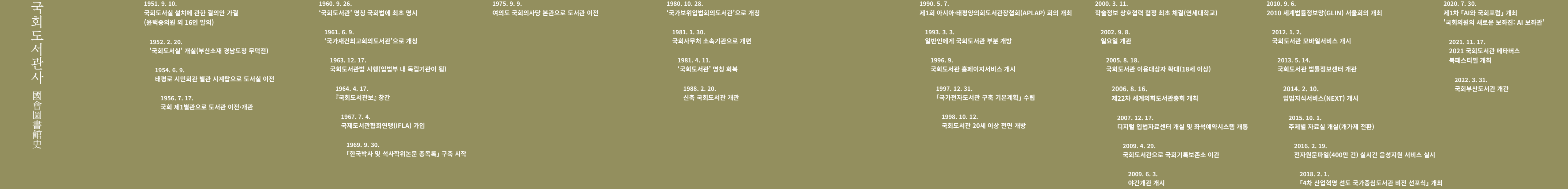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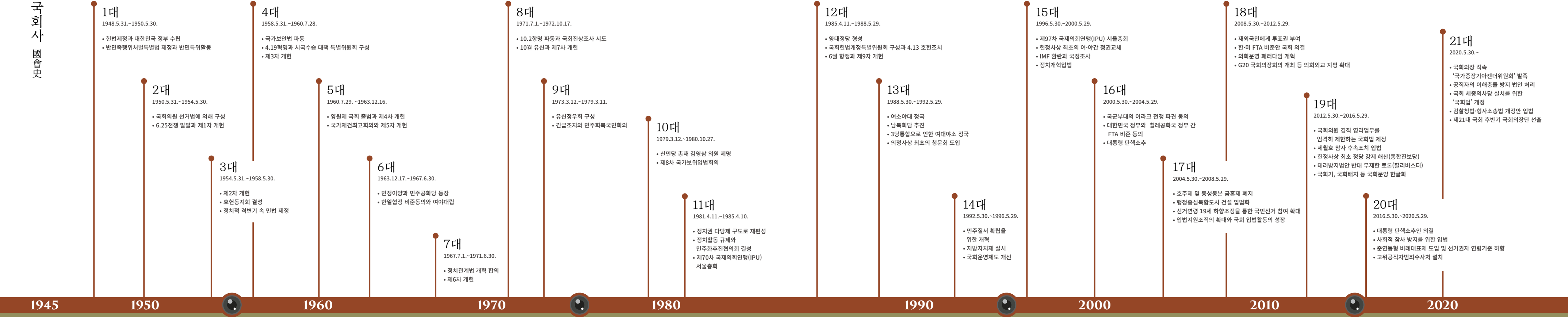
Looking into the National Assembly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도서관의 역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연대표 전시공간입니다.
상단이 국회, 하단이 국회도서관사이며, 가운데 6개의 스크립비전을 통해 국회의 역사를 사진 슬라이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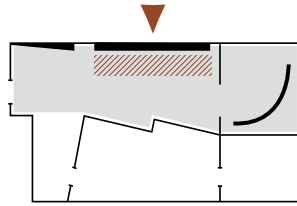
국회의 역사
들여다보기





국회를 살펴보다

Looking over the National Assembly



국회의 구성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2016년 3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은 헌법상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 금지 의무는 물론, 국회법상 품위유지,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 제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과 제45조의 면책특권이 보장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 길잡이, 국회의장단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지칭하며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각각 2년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구, 위원회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기본조직입니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되어 의원 및 정부로부터 발의·제출된 의안들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합니다.

국회의 소통창구,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원내교섭단체라 부르며, 원활한 국회운영을 목적으로 둔 의원단체로, 국회의원들 간 의견을 미리 합치고 조정하는 단체입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국회 이야기 1

국회의원 배지, 한글을 가슴에 품다.

국회의원 배지 디자인은 제5대·제8대 국회에서 잠시 한글 ‘국’자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제19대 전반기 국회까지는 한문 ‘나라 국(國)’이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국회기 및 국회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존의 무궁화 문양은 유지하면서 내부 양각글자는 한글 ‘국회’로 변경되었습니다.



Q 금배지의 진실은?

국회의원 배지는 일명 ‘금배지’로 불리지만 사실은 금 1%와 은 99%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배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순금으로 만든 진짜 금배지였으나, 1981년 11대 국회부터 ‘도금배지’로 변경되었습니다.

Q 배지 뒷면의 일련번호?

국회의원 배지의 뒷면에는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의원 등록 순으로 번호를 부여 받으며 첫 등록시에는 배지 1개씩을 무료로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분실 또는 추가로 구매를 원하는 경우 배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Q 남성용? 여성용?

제20대 국회까지 남성 의원은 나사형, 여성 의원은 옷핀형으로 구분된 배지를 받았으나, 제21대 국회부터는 모두 자석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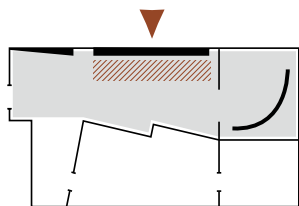
국회의원 배지의 변천사



국회를 살펴보다

Looking over the National Assembly

국회의 활동



입법立法

법을 제정하다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법을 만드는 입법입니다. 국회는 헌법과 기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받아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국가운영을 지원합니다.

재정財政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다

국가의 예산은 정부에 의하여 편성·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합리성·투명성·민주성을 다양한 각도로 고려하여 재정운영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견제牽制

국정 전반을 감시하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대표적입니다.

외교外交

외국 의회와 교류하다

의회외교는 국회의원, 의회외교단체 등이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활동입니다. 의회외교는 의원들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민감한 사안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국회 이야기 2

| 외교 |

국회의장 외교선물, 우정과 신뢰의 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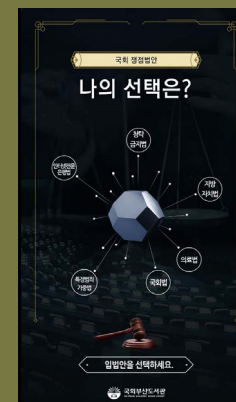
역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이나 방한 주요인사의 국회예방 등 외교활동 과정에서 받은 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외교선물은 양국 간 우정을 확인하는 징표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 입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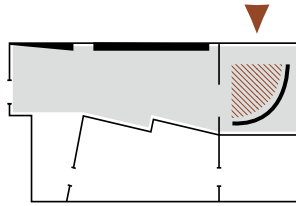
국회 쟁점법안, 나의 선택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입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관람객은 국회법, 청탁금지법, 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6개의 쟁점법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고, 실제 국회에서는 어떻게 표결됐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안접수, 위원회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및 공포 등 개정안 처리상황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만나다

Meeting the National Assembly



시점이동 영상 콘텐츠를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지 않고도 외부 전경 및 내부 중앙홀, 본회의장 등을 VR(Virtual Reality)로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가 걸어온 길 |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국회 이야기 3

국회의사당 건립 기본원칙

1966년 5월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세운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시했던 건립원칙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①남북통일을 대비하자, ②양원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③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인 대규모 건물로 짓자, ④국내 기술진으로 건설하자 등입니다.

의사당에는 회의장이 두 개?

제1회의장은 국회의 최종의사가 결정되는 본회의장으로 쓰이고, 제2회의장은 예산안·결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제2회의장은 본회의장과 배치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규모가 좀 더 작습니다. 이처럼 회의장을 두 개로 나눠서 지은 것은 남북통일이 되어 상원·하원 양원제가 실시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회의 전당’

의사당 중앙의 회녹색 원형 돔은 ‘각기 다른 의견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과 같이 하나의 결론으로 통합된다’는 의회정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의사당 건물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24개 열주는 경복궁의 경회루 석주를 본뜬 것으로 24절기, 하루 24시간을 상징합니다.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을 지원하다 Supporting Legislative Activities

입법지원기관

국회의 역할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지원기관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



국회도서관

국내외 도서, 논문, 멀티미디어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가공하여 국회의원에게는 입법정보를, 국민들에게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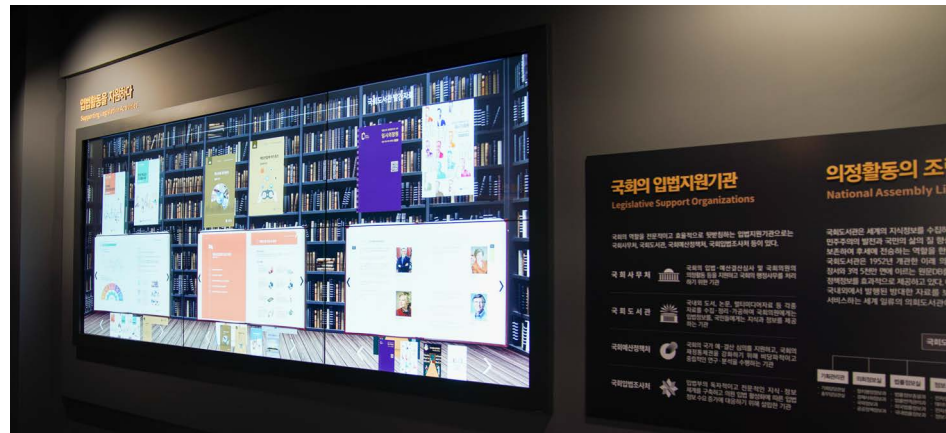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국가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부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입법 활성화에 따른 입법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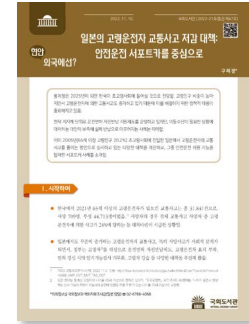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디지털 서재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디지털 서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팩트북』, 『최신 외국입법정보』, 『최신정책정보: 국내』, 『현안입법 알리기』, 『현안, 외국예선?』 등 국회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다양한 발간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시의정원 관련 목록집 및 해제집, 700만 장서 달성 기념도서 『도서관은 살아있다』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팩트북: 한눈에 보기』



『현안, 외국예선?』



700만 장서 달성 기념도서
『도서관은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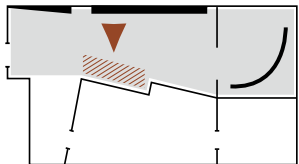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입시의정원』

국회의 뿌리를 찾다

Finding Roots of the National Assembly

임시의정원

1919년 4월 10일 개원한 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인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개원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는 대전환점이 되었으며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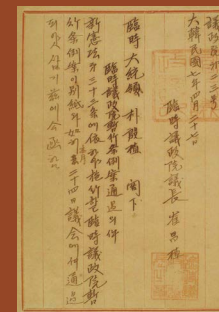


大韓民國三年一月一日
臨時政府及臨時議政院新年祝賀式紀念撮影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국회 이야기 4

임시의정원 관인과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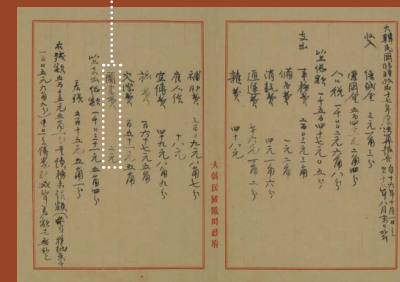
임시의정원 관인은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의 각종 공문서에 찍었던 국새(國璽) 격의 관인으로, 인면에는 ‘임시의정원인(臨時議政院印)’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관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홍진(洪震, 1877~1946)이 1945년 해방 후 그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임시의정원 관인이 날인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임시의정원 운영법이자 오늘날의 ‘국회법’에 준하는 것으로 의원 선거 및 원구성, 회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통과의 건(1925.4.27.)

임시의정원 문서에 기록된 ‘도서비(圖書費)’

국회도서관에서 보존 중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에는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내역 및 변천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십칠년도 결산보고」는 임시정부의 1934년 10월부터 1935년 8월까지의 결산내역이 담겨 있는데, 지출 항목의 도서비(圖書費)가 눈에 띕니다. 당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도서비 ‘2원’을 책정했으며, 이는 임시정부의 전체 지출액 1,031원의 0.2%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圖書費
二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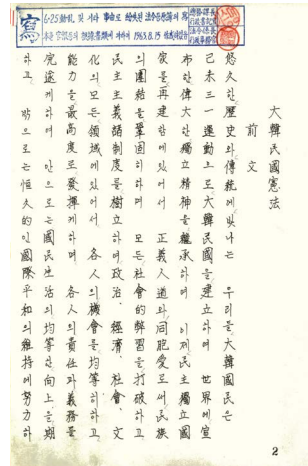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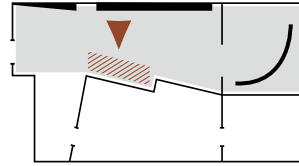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 십칠년도 결산보고(1935)

국회의 뿌리를 찾다

Finding Roots of the National Assembly

제헌국회

1948년 5월 10일은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10총선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라는 4대 원칙에 입각한 투표였으며,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1948년 5월 31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비록 임기 2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헌헌법은 물론, 국회법, 정부조직법, 국회의원선거법 등 국가와 정부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제헌헌법 서문



大韓民國憲法公布紀念
一千九百四十八年七月十七日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국회 이야기 15

5.10 총선거를 독려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

당시 총선거를 사실상 관리했던 주한미군과 UN한국임시위원단에서는 역사적인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본국으로부터 홍보전문가를 초빙하여 주한미군 산하에 특별기구인 ‘공보원’을 설치했으며, 당시 선거포스터, 신문 홍보자료, 공중살포용 전단(빠라) 등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총선거 5월 10일,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내세요!”



5.10 총선거 포스터(1948)

| 국립민속박물관 |

『조선화보』를 통해 본 총선거 투표 방법

5.10 총선거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투표는 ①등록소에 가서 이름을 등록, ②투표 당일 투표소로 가기, ③선거인 명부에 도장이나 지장날인, ④투표용지와 봉투 수령, ⑤비밀실에 들어가서 후보자 이름 아래 투표·봉합, ⑥투표함에 넣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화보(1948. 4. 1.)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

관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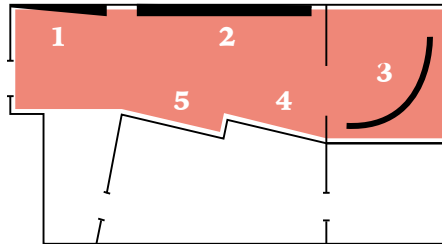
관람시간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7:00

휴관일 법정 공휴일, 매주 화요일



관람 안내도

- 1 국회를 들여다보다
- 2 국회를 살펴보다
- 3 국회를 만나다
- 4 입법활동을 지원하다
- 5 국회의 뿌리를 찾다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

전시기획

주 최 국회부산도서관
총 괄 현은희 국회부산도서관장
기 획 송선하 정보서비스과장
홍원기 기록연구관
박성근 전문경력관

전시협조

자료협조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사무처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미국국립기록관리청
영상제공	국회방송	국회기록보존소
	KBS	

